

# 탈원전에 전력비 9조 증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2030년까지)

## 산업부, 전력진흥 등 현안 제출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전망

정부가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다.

산업부는 작년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원전 등 연료비와 물가는 미래 전망이 어려워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영향만 계산했다. 산업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700억원, 총 8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대로 건설할 경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하면 2023~2030년 연평균 약 1조 원, 총 8조1389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합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는 총 8조9899억원이다.

전력구입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단가, 즉 한전의 원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이 원가 증가를 흡수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현안보고에 언급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8조9899억원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

상요인이 10.9%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당시 분석에서 연료비를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한 만큼 향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실제 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부는 과 의원에 제출한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에서 전력구입비 증가에 대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 발표한 2030년 10.9% 요금 인상분에 이미 반영해 원전 폐지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IT·전자 등 태국 방콕서 한국상품 알린다

## 산업부-코트라, '우수상품전' 개최 CJ오쇼핑 등 105개 우리기업 참여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신남방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에서 '방콕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우수상품전'은 우리기업의 진출 초기 지역이나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으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이 공식 발표된 후 아세안 국가에서는 최초로 열린다.

특히, 올해 수교 60주년 맞는 태국을 거점으로 우리기업이 아세안시장에 보

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기업 105개사가 참가하며 전시 품목은 유망 소비재와 IT·전자, 부품소재 등으로 구성됐다.

씨제이(CJ)오쇼핑, 지에스(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태국 홈쇼핑 시장에 이미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이 함께 참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14개국 1000여 바이어와 유통기업이 전시를 관람하고 우리기업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CP ALL, 센트랄 그룹과 같은 태국의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참가해 우수 소비재 기업과 입점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채용박람회도 열려 구인기업 20개사와 청년 구직자 100여 명이 참가하는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인(모바일 메신저), 비제이씨(BJC) 중공업(해양플랜트), 동부제철(철강), 락엔락(소비재) 등 우리 기업과 매리어트(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참가해 총 35명의 한국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박덕렬 산업부 무역진흥과장은 "신남방 지역과 상생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유통망 확보와 양국의 상호투자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신남방 국가를 미·중·일·러 4강과 동등한 수준의 동반자로 격상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드문드문 걸린 태극기

제4350주년 개천절인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드문드문 걸려 있다.

/연합뉴스

## 韓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 캄보디아에 전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유량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을 캄보디아에 전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은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이엔이와 함께 이날부터 캄보디아 국가계량센터에서 시제품 가동을 시작했다.

국표원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함께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캄보디아측과 협의해 주유기에 조작방지 모듈 장착 의무화의 법제화를 지원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캄보디아에는 주유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이번 지원은 캄보디아가 석유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캄보디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유기 관련 법제도가 진행된다면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지역별로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남아, 남미 등 지역 단위의 표준·인증분야 협력체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관에 마련된 아라온호 내부 탐험 체험관.

/해수부

## 18년째 복역 중 무기수 첫 재심

### 아버지 살해 혐의 김신혜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지구의 끝 ‘남·북극’을 도심서 만나자”

### 해수부, '2018 극지체험전시회'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을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해수부 산하인 이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2018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극지체험전시회는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올해에는 '가자! 지구의 보고 남극·북극에'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시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래 전 지구의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극 빙하와 운석, 펠린·바다표범·바닷새 등 극지 동

물, 해조류·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동·식물의 표본들과 방한복 등 극지 용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극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 극지탐험 난파선을 실제로 탑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스노모빌과 같은 장비들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비롯해 북극곰·펭귄 모형 전시, 극지 사진전 등 도심 속에서 극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한편, 2018 극지체험전시회는 관람 기간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 전국 12곳 순회 '통상·무역정책 설명회'

### 산업부, 정부 정책방향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이달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을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해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계기 설명회 이후 4년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FTA 이슈 및 활용과 함께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전반적인 내용을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FTA 추진 동향,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계획, FTA 활용 촉진정책 및 무

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4일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중국,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동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한-러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도 공유한다.

또 지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용촉진정책과 자유무역협정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상주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는 물론,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통상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